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에 대한 미일제국주의의 침략의 력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미제와 일제는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우리는 지난날 미제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의 력사를 잘 알고 놈들을 끝없이 증오할줄 알아야 한다.

이 교재에서는 이미 6학년 조선력사에서 1920년대까지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내용을 주었으므로 그 이후시기 내용을 취급하고있다.

우리는 이 교재학습을 통하여 미제와 일제의 변하지 않는 침략적본성과 1920년대 이후 놈들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침략죄행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또다시 침략의 칼을 벼리는 미제와 일본반동들과 끝까지 싸울 각오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제1장.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

제1절.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파쑈폭압과 강제련행만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포악성은 1931년 9.18사변이후, 특히는 1941년 태평양전쟁개시이후에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죄행에서 가장 큰 죄행의 하나는 1930년대부터 1945년 패망전까지 인류력사에 없었던 가장 간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한것이다.

이 시기 일제는 우선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하여 그것으로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억누르고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1. 군대와 경찰의 증가, 악법의 조작

조선주둔 일제침략군의 증가

일제는 조선강점 전기간 조선주둔 침략군 수를 계속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그리하여 1932년에 침략군을 10여만명 가지고있었다면 1945년 패망직전까지는 15개 사단이상의 무력인 30만명이상을 가지고 우리 인민을 탄압학살하였다.

경찰폭압기구확대

1920년대까지만 해도 1개 군에 1개의 경찰서, 1개 면에 1개의 경찰관주재소를 두었다면 1930년대에는 대부분의 군, 면에 2개이상의 경찰서와 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하였다.

특히 북부국경지대에는 경찰기관을 더 많이 배치하였는데 1936년에 국경연안에 설치한 경찰서와 경찰관주재소는 305개나 되였으며 국경연선 2km어간에 경찰관주재소와 포대가 1개씩 설치

되여있었다.

새로운 경찰기구, 경찰보조기관을 내오고 동원체계를 세웠다.

그러한것들은 외사경찰과, 경제경찰, 경방단, 재향군인회, 경찰예비원, 방위총본부, 방위본부, 특별경찰대같은것들이였다.

파쑈단체조작

일제는《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조선방공협회》와 같은 파쑈단체들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을 저들의 침략전쟁에 총 동원하며 공산주의사상 및 운동을 박멸하고 《일본정신을 앙양》시킨다고 하였다.

각종 악법조작

일제는《사상범보호관찰령》,《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개정치안유지법》,《국가총동원법》,《군기보호법》,《국가보안법》과 같은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하였다.

그리고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한마디, 행동하나에도 이 많은 법중에서 어느 한 법, 어느 한 조항에 걸어 감옥에도 가두고 테로를 감행하여 죽이기도 하였다.

결국 조선사람은《자유가 있으면 좋겠다.》,《배고프다.》,《일자리를 달라》와 같은 보통말을 해도 경찰이나 그 보조원, 밀정이 들으면 잡혀가게 되여있었다.

그러므로 조선독립, 일제타도와 같은 말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할수 있는 말이였다.

2. 파쑈폭압과 학살만행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탄압

봉건사회, 중세기가 지난 현대세계에서 인민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자유이며 권리이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민에게 그러한 자유와 권리는 커녕 그 흔적마저 짓밟고 노예처럼 굴종할것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에 원산로동자들의 총 파업, 단천농민폭동, 광주학생운동 등 대중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겨우 찍어내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마저 1940년 8월에 금지시키고 오직 총독부의 신문들만 찍게 하였다.

연설이나 토론, 일반 여론에서도 일본놈들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것이 있으면《죄》를 들씌워 즉결처분하는데 즉결처분이란 말그대로 《불온언동죄》, 《류언비어죄》 등으로 즉석에서 죄명을 붙여 처벌하는것이였다.

1935년에 즉결처분된 사람은 12만 1 990명이며 1937~1941년사이에는 78만 7 402명이나 되였다.

또한 1943년 8~9월사이에 《불온언동죄》, 《류언비어죄》 등으로 검거, 투옥, 학살한 건수는 1 857건에 달하였다.

집회나 결사의 권리도 말할것 없었다.

정치적모임이나 그 어떤 집회든 할수 없으며 더우기 무슨 당이나 조직을 뭇는것이 발각만 되면 그것은 곧 총칼의 탄압대상으로 되였다.

중국동북지방의 조선인거주지역 특히 유격근거지들에 대한 토벌만행

일제놈들은《조선사람 100명을 죽이면 그중에서 적어도 1명은 공산당원이 아니면 공청원일것이다. 조금도 사정없이 잡아 죽이라》고 하면서 로인들과 부녀자들을 집안에 가두고 불을 질렀으며 밖으로 나오는 어린이들을 총창으로 찔러 다시 불속에 집어던지는 등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들을 감행하였다. 1932년 4월~1933년 3월사이에 감행된 간도파견대의 토벌은 이러한 만행의 대표적실례로 된다. 일제는 이런 방법으로 동만에서 무려 281회의 토벌을 감행하여 4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4 000여호의 집을 불태워버렸다.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공세

일제놈들은 1936~1937년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한다고 하면서 관동군사령관놈의 지휘밑에 수만명의 병력으로 참빗전술까지 써가며 동기토벌을 감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일제의 토벌책동은 특히 1938~1939년 겨울에 있은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시기 가장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이 시기 일제놈들은 대소탕전의 주되는 목표를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 두고 관동군 주력부대의 대부분을 포함한 수십만의 대병력과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토벌에 미쳐 날뛰였다.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지나갈수 있는 요소요소에 다 군대를 배치해 놓았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이 나타나면 끊임없는 공격과 추격을 가하고 2~3중의 포위진을 펴군 하였다.

진드기처럼 따라다니는 장거리추격전술로 하여 어떤 날은 하루에 20여차례의 전투를 할 때도 있었다.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와 키를 넘는 눈속을 다 찢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강냉이 몇알과 몇숟가락의 미시가루마저 떨어져 놈들에게서 빼앗은 말고기를 소금도 없이 날것으로 씹으며 전진하는 대오에 적들은 독약을 친 소금을 지워 간첩을 들이밀고 비행기로 투항하라는 삐라를 뿌리며 악착하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일제놈들의 그 어떤 간악한 토벌책동도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령활무쌍한 전법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당하였다.

《집단부락》정책과 《보갑제도》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사이의 혈연적련계를 끊기 위해 1933년부터 《집단부락》정책과 《보갑제도》를 실시하였다.

일제놈들은 유격근거지근방은 물론 산간지대와 주변농촌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농가들을 강제로 모아 《집단부락》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집단부락》주위에는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는 일제

침략군과 위만군, 경찰, 무장자위단 등을 배치하여 출입인원을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유격대와 인민들의 련계를 끊어놓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전반적조선혁명을 가로 막으며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이 국내에 미치는것을 가로막기 위해서도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사상범》검거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 1938년에 162건, 1941년에 232건, 1942년에 322건이나 되였다.

3. 조선사람 강제련행만행

강제련행이란 강제로 끌어간다는 말이다.

일제는 840만여명의 조선사람을 강제로 붙잡아 끌어갔으며 그중 100여만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 시기 조선민족은 보통 2 000만이라고 불러왔는데 840만여명을 끌어갔으니 그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수 있다.

그럼 일제가 무엇하려 어디로 어떻게 조선사람을 강제련행했는가.

목적은 한가지 저들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끌어가는 곳은 전쟁마당과 무서운 죽음의 공사장, 탄광, 광산 같은 고역장이였다.

강제련행형태는 크게 세가지 징병, 징용, 일본군《위안부》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제징병자수는 륙군(지원병)이 1만 7 664명, 륙해군 징병이 24만 847명, 학도병이 4 385명, 륙해군 군속이 15만 4 186명, 강제징용자수 778만 4 839명, 일본군《위안부》 20만명 등 840만여명이다.

일제는 1941~1945년 태평양전쟁, 1937~1945년 중일전쟁, 1938년 하싼호사건(장고봉사건), 1939년 할힌골사건 등 끊임없는 전쟁을 벌리면서 여기에 필요한 침략군대와 군수로력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대포밥으로 만들었다.

징 병

징병제는 1944년부터 실시하였다. 그전에는 1938년부터 지원병제, 1943년부터는 학도병제를, 1945년 6월에는 국민의용병법을

조작공포하고 조선청장년들을 군대에 끌어다 전쟁대포밥으로 내몰았다.

일제놈들은 밭갈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민을 갑자기 달려들어 랍치하고 친척집에 갔다오는 청년도, 지어 잔치상을 받은 신랑신부도 끌어내여 붙잡아갔다. 끌어갈 때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군대에 간다는 《징령장》이라는 종이쪽지를 내댔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먄마, 중국 등 낯선 이국땅 총포탄이 울부짖는 불바다속에서 고향의 부모형제소식을 알길도 없이 《일본의 승리》를 위해 죽어야 하였다.

고향에 있을 때는 《일본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고 마지막 놋숟가락까지 대포깍지를 만드는데 빼앗기다가 징병으로 끌려와서는 이렇게 죽어야 하는것이 징병, 학도병, 지원병, 국민의용병들의 처지였다.

이름은 각각 학도니, 지원이니, 국민의용이니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내용은 다 징병, 전쟁대포밥이였다.

징 용

일제는 징용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끌어다 비행장닦기, 도로건설장, 탄광, 광산, 군수공장들에서 일시키다가 공사가 끝나면 비밀보장을 위하여 집단학살하였다.

1939년 1월부터 국민징용령을 실시하여 조선, 중국, 일본 등 국내외에 수백만명을 끌어갔다.

일본군《위안부》

일제침략군대에 끌려다니면서 이른바 《위안》이라는 미명하에 녀성들의 정조를 유린한 범죄적행위를 말한다.

그《위안》이란 황군(일제침략군)의 전투사기를 높이기 위해 그들의 성노리개로 되여 조선녀성의 정조를 유린당하고 짓밟히우고 모욕당하다가 매맞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생매장당하거나 목매달려 죽는것이였다.

이렇게 하는것을 당시 일본정부와 군부가 조직하였다.

일제는 처녀나 유부녀를 가리지 않았다. 시집가는 새색시도 상관없고 부모가 죽은 외동딸 고아처녀도 가리지 않았다. 길가에서 랍치해도 되고 마을의 집집에 달려들어도 되였다.

붙잡아서 자동차로, 기차로 실어다 저 멀리 태평양전쟁의 치렬한 싸움마당인 인도네시아의 쟝글속 황군장교들과 졸병들에게 들이밀었다.

그러면 그 야수들이 제하고픈대로 무슨 짓이든 다 하다가 죽이면 되였다. 죽이는 방법은 그들의 기분이 어떠한가, 어떤데서 희열을 느끼는가에 따라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죽이기도 하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과거 일본군《위안부》죄행을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으며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도 하지 않는 날강도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 놓았다.

그뿐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새 력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범죄문제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력사외곡책동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일제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련행하여 성노리개로 삼다가 무참히 학살한 특대형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제2절. 조선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략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부원을 마음대로 빼앗아갔으며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였습니다.》

1. 병참기지화책동

병참기지-전쟁을 위한 보급기지라는 뜻이다.

일제는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려고 하였다.

《농공병진》, 《북선개척책동》

일제는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농업과 공업을 다 같이 발전시킨다는《농공병진》, 북부조선에 군수공업을 건설하여 그곳을 개척한다는 《북선개척》의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조선사람을 위한 경제건설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군수산업을, 그것도 기형적인 군수산업을 건설하였다.

성진제강공장과 청진제철공장(1930년대 전반기)은 군수용특수강생산을 위하여, 조선질소화약주식회사(1936년)는 군수용화약생산을 위하여 건설하였다.

식민지략탈을 위하여 철도, 다리, 항만, 도로도 건설하였다.

지하자원략탈

금-1935년에 17t 815kg, 1939년에 31t 173kg

극히 줄여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기간 략탈해 간 금은 근 400t에 달한다.

쇠돌-1933년에 52만 2 000t, 1943~1944년에 569만 6 000여t

일제는 1944년 한해동안에만도 조선현지에서 900만t의 선철과 강철을 략탈해갔다.

일제는 이밖에 공업의 기본원료인 석탄과 함께 연, 아연, 니켈, 마그네사이트, 몰리브덴, 코발트, 탕그스텐, 망간, 류화철, 린회석, 흑연 등 유용광물들도 강탈해갔다.

일본의 군수공장원료소비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략탈하여간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4년에 마그네사이트, 흑연, 운모, 코발트는 각각 100%, 형석은 96.8%, 월프람은 88%, 몰리브덴은 85%, 쇠돌은 36%를 차지하였다.

2. 《농촌진흥운동》과 농촌수탈

《남면북양》, 《자작농창정계획》

남부조선에서는 목화를 심고 북부조선에서는 양을 길러 돈을 벌고 또 저들의 돈을 꾸어 토지를 사서 소작농으로부터 자작농이

되기 위한 《운동》을 벌리라는것이였다. 이것이 《농촌진흥운동》이라는것이다. 농민들의 피땀을 짜내기 위한 교활하고 간악한 술책이였다.

농촌수탈

① 식량략탈

1930년에 543만석, 1936년에 946만석, 1942년에 1 125만 5 000여석, 1943년에 1 195만 7 000여석의 쌀을 략탈하였다. 놈들은 쌀략탈을 위하여 1939년부터 강제공출제도를 실시했으며 1943년에는 폭력적식량략탈기관인 《식량영단》까지 설치하였다.

1939년에 조선에서의 인구 1인당 쌀소비량은 60kg이하로 떨어졌다.

놈들은 조선에서 기름진 쌀을 빼앗아가고 만주에서 수수나 대두박을 가져다가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다.

② 목화솜략탈

1933년에 4 683만근, 1939년에는 1억 6 600만근(생산량의 76%)에 달하였다.

③ 소략탈

1933~1942년기간에 69만 6 614마리를 식용으로 략탈해갔다.

3. 최후발악적인 《국가총동원법》과 《전시증세령》

일제의 략탈만행은 멸망이 가까와옴에 따라 최고절정에 이르렀다.

일제는 1938년 4월에 《국가총동원법》과 《전시증세령》을 공포하였다.

※ 《국가총동원법》

1938년 4월 1일 일제가 조작한 파쑈악법

일제가 조선의 인적물적자원을 저들의 침략전쟁터에 깡그리 빼앗아가는 날강도적인 책동을 감행하기 위한 악법이다.

※ 《전시증세령》

1938년 4월 1일 일제가 조작한 악법

일제가 매해 조선인민들로부터 1 100만원의 세금을 더 강탈하여 침략

전쟁의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악법이다.

일제는 이 악법들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침략전쟁수행에 총동원하려고 발광하였다.

놈들은 수십가지의 가렴잡세와 함께 저금, 채권, 국방헌금 등의 명목으로 조선사람들의 마지막 푼전마저 빼앗아냈다.

《전시증세령》을 공포한 후 일제는 매년 그전보다 1 100만여원의 세금을 더 강탈하였다.

놈들은 철제로 된 가정용품들과 농기구, 공공건물의 쇠울타리와 다리의 란간, 지어 놋그릇과 놋수저, 제상의 놋초대와 놋술잔, 녀자들의 비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속제품들을 다 빼앗아갔다.

제3절.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

일제는 1930년대이후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우리 인민을 《황국신민화》함으로써 조선민족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1. 교육을 통한 《황국신민화》책동

황민화교육

※ 《황국신민화》

조선사람을 일본《천황》국가에 충실한 신하, 백성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일제는 1929년부터 면소재지와 산간지대에 2년제 간이학교들을 세우고 학생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본말, 산수 등 초보적인 교육을 주는것과 함께 1932년부터 학생들의 몸과 정신을 일본정신, 일본놈으로 만들기 위한 사상교양과목인 《수신》, 《공민》과목을 새로 내오고 학생들을 저들의 노예로, 전쟁대포밥으로 써먹으려 하였다.

일제는 1938년 3월에 《신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내선교육제통일》, 내선공학을 떠들면서 조선에서의 교육제도를 《황민화》정책의 요구에 철저히 복종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에 허리 굽혀 절을 하며 《황국신민》이 되겠다는 맹세의 글을 왜말로 외우는것이다.

일제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궁성요배》를 하고 일본기발을 띄우게 하였으며 《황국신민의 서사》를 랑독하도록 강요하였다.

교육의 군사화, 파쑈화

일제는 학교들에 군사교관(배속장교)을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도발후에는 중학교이상 모든 학교들에서 군사교련을 강요하였으며 지어 소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시켰다.

놈들은 군사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침략적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면서 일본《천황》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것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1938년 이후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군복형식의 복장과 전투모차림에 배낭을 메고 각반을 치고 다니게 하였으며 학교안에 파쑈적군사규률을 세웠다.

그리하여 학교들은 배속장교의 통제밑에 있는 병영으로 전변되였다.

일제는 이처럼 교육기관들을 군사화한데 기초하여 이른바 지원병, 학도병, 징병 등으로 수많은 조선학생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어냈던것이다.

2.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황민화》책동

《내선일체》, 《동조동근》론

1930년대부터 일제가 들고나온 《내선일체》, 《동조동근》론은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이 예로부터 《하나의 나라》, 《하나의 령토》에서 산 《하나의 민족》이며 《조상이 같다》는 허황하기 그지

없는 주장이다. 놈들이 《내선일체》, 《동조동근》론을 들고나온것은 조선사람들을 《황민화》하여 조선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내선일체》, 《동조동근》론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놈들은 조선사람과 일본사람은 본래 하나의 조상을 가진 옛날의 일본족이며 오늘의 조선인은 그 후예들이라고 력사를 꾸며내였다.

단군과 조선고대사말살책동 (1920년대에 감행)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과 조선고대력사를 말살하려고 책동한것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고대력사에 관한 책들을 20만부나 압수하여 불살라 버리였다.

그리고 조선력사를 외곡날조하기 위해 조선사편수위원회를 만들어낼 때에는 단군조선의 력사를 조선고대력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을 거기에서 내쫓았다.

놈들은 1925년 6월 조선사편수위원회를 조선사편수회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정무총감을 회장으로, 리완용, 권중현 등 친일매국역적들을 그 고문으로, 조선력사를 위조하는데서 악명높은 일본어영사가들을 위원으로 하고 세나라이전 고대국가들의 력사를 원시사회의 력사로, 전설적인 력사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함으로서 조선사의 시발점을 신라때부터 설정함으로써 5 000여년의 유구한 력사가운데서 3 000여년간을 잘라버리였다.

이것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동방에서 가장 일찌기 단군조선이 성립되여 고대문화가 꽃펴난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없애버리려는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이였다.

《신사참배》강요

일제는 도처에 《신사》(이른바 일본의 조상신을 모시는 집)들을 대대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찾아가서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일제가 조선에 세운《신사》는 1935년 현재 서울에《신궁》1개, 큰《신사》52개, 작은《신사》262개였으며 1942년 말에 와서는《신사》만도 828개나 되였다.

멸망직전에는 벽촌의 소학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들에《신사》를 세웠다.

놈들은 년중《행사》때마다 학생들에게는 주에 한번씩 집체《참배》를 강요하였으며 누구든《신사》앞을 지날 때에는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가미다나》

일제는 특히 1943년 2월부터는《가미다나》라는것을 집집마다 나누어주어《깨끗한 곳》에 매달아놓고 아침저녁으로 그 앞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가미다나》라는것은 일본의 개국신이라는《천조대신》의 이름패쪽을 넣은 일본식귀신상자이다.

《정오묵도》 강요

일제는 1937년부터는《황국신민의 서사》와《정오묵도》를 강요하였다.

《정오묵도》라는것은 침략전쟁마당에서 개죽음을 당한 일제침략군놈들의 명복과 침략전쟁의《성과》를 빌어 매일 정오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강요한《묵도》이다.

일본말 사용강요

일제는 조선말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일본말만 쓰도록 강요함으로써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놈들은《내선일체는 국어상용으로부터》라는 구호를 내걸고 관청, 회사, 학교, 공장 등에서는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지어는 목욕탕안에서까지 일본말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였다. 일본말을 쓰지 않

는 사람은 《비국민》이라고 탄압했으며 그런 사람에게는 기차표도 팔아주지 않았다.

놈들은 일본말의 강제적보급을 위해 모든 언론, 출판, 보도수단들을 다 동원하였으며 연극, 음악까지도 다 일본말로 하도록 강요하였다.

창씨개명책동

일제는 조선인민을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칠것을 강요하였다.

놈들은 1942년 2월부터 총칼로 위협하면서 창씨개명놀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식 생활양식강요

일제는 옷차림풍습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을 파괴하고 일본식 생활양식을 주입시키려고 간악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백의동포인 조선사람들에게 흰옷을 입지 말고 색옷을 입으라고 했으며 남자들에게는 이른바 《국민복》을, 녀자들에게는 《몸빼》를 일상적으로 입을것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말살하고 민족적인 모든것을 빼앗음으로써 조선민족을 영영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제2장.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침략전쟁도발,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

제1절.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화책동

1. 《38분단선》조작과 남조선강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책동하였으며 해방후에는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온갖 민족적재난과 불행을 들씌우고있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미제는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자 남조선을 강점하고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38분단선》조작

1945년 8월 미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개시와 함께 일제가 항복의사를 공포하자 조선인민혁명군이 전조선을 해방하면 저들은 조선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리라고 당황망조해하였다.

※ 일제의 항복의사는 8월 10일 저녁 방송으로 공포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1945년 8월 《조선 북위 38° 선이남에 있는 일본군은 미군에 의하여 그 무장이 해제된다.》고 규정한 《일반명령 제1호》라는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이전 쏘련과 영국정부들에 통고하였다.

이것은 38° 선이 일제의 무장해제를 실현하기 위한 림시적인 책임지역분담계선으로 규정한것이지 결코 조선의 북과 남을 가르는 《분단선》으로 한다는것을 규정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38° 선문제를 들고나올 때부터 그것을 조선분할계선으로 여기면서 남조선을 저들이 강점하고 지배하려고 하였다.

미제에 의한 38분단선의 조작은 조선분렬의 시초로 되였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38분단선을 조작한 미제는《해방자》의 탈을 쓰고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며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허울밑에 1945년 9월 8일부터 10월말까지 남조선 전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강점하였다.

미제침략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완전전투태세를 갖춘 후 곧장 서울에 기여들었으며 13일에는 개성과 청주, 16일에는 부산, 20일에는 춘천을 강점하고 련이어 10월말까지 온 남조선땅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2. 《군정》통치와 식민지화

미군정청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1945년 9월 11일 미군정청을 설치하였다.

미군정청은 일제의 총독통치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식민지통치기구였다.

총독을 군정장관으로, 총독부를 군정청으로 고쳐부르고 그 우두머리자리에 일본놈대신 미국놈을 들여앉히였다. 지방행정체계도 일제의것이 그대로 보존되여 도지사, 군수, 면장놈들이 주인행세를 하였다.

미제는 군정통치를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정치적예속화

○ 인민위원회해산

미제는 인민들이 세운 인민위원회들을 강제해산시켰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 하지놈은 1945년 12월 12일 인민위원회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 《정판사위조지페사건》조작

미제는 공산당을 비법화하며 민주력량을 탄압하려는 목적밑에 1946년 5월 15일에 이른바 《정판사(남조선공산당기관지 인쇄소) 위조지페사건》을 날조하고 수많은 당원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넘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 이 사건이란 위조화페를 찍어냈다고 날조한 조작극이다.

미제는 이 사건을 조작하여 공산당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당을 고립시키며 나아가서는 그를 비법화하고 민주진영을 약화시키려고 꾀하였다.

○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탄압

미제는 1946년 8월 15일 광주, 화순탄광로동자들의 시위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여 100여명의 로동자들을 살상하였으며 1946년 남조선로동자들의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에 비행기와 땅크, 화학무기로 무장한 수만명의 군경을 내몰아 2만 5 000여명의 인민들을 학살하는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 한국민주당조작

미제는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들로 구성된 한국민주당을 반동규합의 정치적도구로 리용하였다. 놈들은 한국민주당의 반역무리들을 군정장관의 최고고문으로 임명하였다.

○ 《대한민국대표 민주의원》조작

1945년 10월에 리승만을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에 끌어들인 미제는 1946년 2월 군정고문제 대신 이른바 《대한민국대표 민주의원》이라는것을 조작하고 리승만을 그 《의장》자리에 내세웠다.

○ 《남조선파도정부》 조작

1946년 12월에는 이른바 《립법의원》을 조작하였고 1947년 2월에는 군정청행정부의 괴수 민정장관으로 조선인주구를 임명했으며 6월에는 군정청민정부문을 《남조선파도정부》라고 고쳐 부르게 하였다.

경제적예속화

○ 《적산》강탈

미제는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하여 강점후 그전시기 일제가 소유하였던 일체 모든 재산을《적산》이라는 명목밑에 송두리채 강탈하였다.

※ 적산

자기 나라에 있는 적국의 재산, 적국 국민의 재산

○ 《원조》

미제는《원조》의 간판밑에 변질된 식료품과 팔리지 않고 남은 소비품을 들이밀어 남조선경제의 자립적발전의 길을 완전히 막아치웠다.

○ 귀속재산과 예속자본가

미제는 1947년부터 일제가 차지하고 있던 재산을 친일친미파, 모리간상배, 투기업자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예속자본가들을 키워냈다.

○ 신한공사와 지주육성

미제는 동척을 비롯하여 일제가 소유하였던 토지로 신한공사라는것을 조작하고 그후 그 토지를 친일친미파, 반동관료배들에게 주어 그들이 지주로 자라게 하였다.

문화적예속화

미제는 1946년 8월에 이른바《국립서울대학교안》을 발표하고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기여들자마자 모든 분야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선포하고 조선말을 유린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1946년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여있던 도서들을 수많이 도적질해 갔으며 1947년 4월에는 경복궁정원을 파괴하고 저들의 병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48~1949년에는 서울중앙박물관에 보관되여있던 신라의 금관과 구슬, 목걸이, 팔찌, 금반지 등을 략탈해갔다.

군사기지화책동

미제는 강점직후부터 남조선도처에서 군용도로와 수많은 공군기지 및 군항들을 신설확장하였다.

한편 미제는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써먹을 식민지고용군조직에 광분하였다.

※ 1945년 11월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조작하고 그해 12월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였다가 1946년 5월에 그것을 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편하였다.

남조선괴뢰군수-1946년 2월현재 6개련대, 1947년에는 5개려단, 1개기갑련대로 증가하였다. 반동경찰수는 1945년 현재 1만 5 000명이였다.

3. 미제의 조선분렬책동, 남조선괴뢰《정권》조작과 신식민주의적지배체제 수립

조선분렬책동

○ 남조선에로의 전력, 화학비료공급 차단

미제는 북반부로부터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게 여러가지로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5월이후 남조선공업은 북반부의 풍부한 동력원천과의 련계를 완전히 끊기우게 되였다.

미제는 북반부로부터 화학비료도 공급받을수 없게 하였다.

○ 유엔림시조선위원단조작

미제는 1947년 9월에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 갔으며 이해 11월 14일에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고 그 감시밑에 《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1948년 2월 26일에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실시에 관한 결의를 강압통과시켰다.

당시 8개의 유엔림시조선위원단성원국(오스트랄리아, 중국(장개석도당), 엘쌀바도르, 프랑스, 카나다, 인디아, 필리핀, 수리아)들가운데서 4개국대표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실시를 반대하였다.

○ 5.10단선과 리승만괴뢰《정권》조작

미제는 1948년 5월 10일 남조선에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독《선거》를 감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날조하여 8월 15일에는 리승만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미제는 남조선에서 신식민주의적통치를 위한 정치적도구를 마련하였으며 조선은 영구분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 신식민주의

제국주의자들이 총독, 통감노릇하면서 식민지를 직접 통치하는것이 아니라 식민지나라 반동들로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통치하는것이다.

각종 조약과 협정조작

○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협정에서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남조선치안부대의 조직과 훈련, 장비를 계속 실시하며 괴뢰군과 경찰무력에 대한 직접적통치권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지역, 시설(항구, 병원, 철도, 통신, 비행장)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괴뢰군과 경찰에 대한 지배권, 군사기지 및 시설물에 대한 관할권, 괴뢰군의 편성과 장비에 대한 권한 등을 계속 틀어쥐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예속을 계속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 그밖의 협정들

1950년 1월 26일 미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장악), 1948년 9월 11일 재정 및 재산이양에 관한 협정(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합법화), 1948년 12월 10일 경제원조협정과 1950년 1월 호상방위원조협정(남조선경제에 대한 지배와 예속 합법화) 등이다.

현지지배기구 설치

○ 미국대사관

미제는 군정통치시기 군정장관의《정치고문실》을 모체로 하여

1949년 4월에 미국대사관을 설치하였다.

○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 설치

미군사령관은 남조선현지에서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집행하는 우두머리로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에 대한 통일적인 작전지휘권을 틀어쥐였다.

○ 미경제협조처

미경제협조처는 대충자금(이른바《원조》물자의 판매자금)을 틀어쥐고 통제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간섭과 통제, 략탈정책을 현지에서 직접 집행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현지지배기구들을 통하여 괴뢰정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면서 남조선에서 신식민주의통치를 실시하였다.

제2절. 미제의 조선침략전쟁도발과 만행,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죄행

1. 조선침략전쟁준비

정치생활의 파쑈화

①《국가보안법》 조작

미제와 그 주구들은 1948년 12월 1일에 파쑈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조작공포하고 1949년에만도 11만 8 000여명의 애국자들을 체포, 구금, 학살하였다.

②《신문지법》 조작

1949년초에 이른바 《신문지법》을 조작하고 모든 민주주의적 출판물들을 강제페간시킴으로써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언론, 출판에 대한 초보적자유마저 완전히 빼앗았다.

③ 기타악법

《국방경비법》(1948년 7월), 《국군조직법》(1948년 11월), 《병역법》(1949년 3월)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괴뢰통치기구의 파쑈체제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였다.

혁명력량에 대한 탄압

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 완전금지

1949년 9~10월사이에만도 132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해산시켰다. 특히 남조선로동당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② 제주도인민항쟁탄압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미군사고문단장 로버트의 지휘밑에 1948년 제주도인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야수적인 살륙전을 감행하여 도내 총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의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총 400개의 부락중 295개 부락(1만여호)의 민가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③ 려수군인폭동 탄압

1948년 10월 려수군인폭동때에는 비행기와 땅크, 군함까지 동원하여 5 000여호의 집을 불사르고 6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전쟁준비를 위한 《원조》

미제는 《상호방위원조법》(1949년)과 《군사원조쌍무협정》(1950년 1월)을 조작하고 특히 1950년 2월 미국회에서 남조선에 대한 《원조법》을 조작한후 직접적군사《원조》를 더욱 늘이는 한편 그 대충자금을 오직 침략전쟁에만 충당하게 하였다.

괴뢰군증강

괴뢰군무력은 국방군으로 개편될 당시 5개려단에 불과하였다면 1949년말에는 8개의 보병사단과 1개의 기갑련대, 2개의 독립대대, 6개의 105mm곡사포대대를 가진 무력으로 증강되였다.

이밖에도 수천명의 해공군무력과 5만명의 전투경찰대가 꾸려졌다.

그후 1950년 6월에는 15만명으로 늘어났다.

미제는 군사《원조》를 증대시키면서 함선, 비행기, 땅크 등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대대적으로 공급하였다.

군사기지화책동의 강화

군용도로, 항만, 비행장건설 및 개축공사를 강행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요지역들에 영구적군사시설들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38° 선 전연선에 걸쳐 전호와 참호들을 굴설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계획적인 무장도발

이미 1947년부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해 온 미제는 1949년에는 무려 1 863회의 무력침입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1949년에 이르러 무장침습에 괴뢰군 8.1보병사단과 수도사단의 대대와 련대들을 비롯하여 호림부대, 백골부대 등 련대, 사단규모의 무력과 특수부대,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였다.

미제는 1949년에 이미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계획도 완성하였다. 그러나 38° 선무장침습에서 괴뢰군이 계속 참패를 당하게 되자 《북벌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2. 조선침략전쟁도발

로이얄의 《북벌》계획 지도

1950년 1월에 미륙군장관 로이얄놈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괴뢰군의 《북벌》계획을 지도하였다.

맥아더의 지시

2월에는 맥아더놈이 리승만역도와 괴뢰군참모총장놈을 미극동군사령부에 불러다가 북반부를 침공할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비상경계령 선포

미제는 1950년 6월 9일에는 특별사찰경비령을, 11일에는 비상계엄령을, 13일에는 준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38° 연선과 남조선전역에 삼엄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덜레스의 공격지시

6월 17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의 특사로 남조선에 기여든 덜레스는 미군사고문단 및 괴뢰군고위층을 이끌고 38° 선일대를 시찰하면서 38° 선 전호속에서 《북벌》에 대한 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비준하였다. 다음날에는 리승만도당에게 6월 25일 북반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것을 지시하였다.

덜레스놈은 《북조선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 공격을 개시하라 …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그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함으로써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라고 지껄이였다.

이처럼 미제는 면밀한 계획과 준비에 기초하여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3. 전쟁시기 우리 공화국을 없애려고 한 미제의 악랄한 책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현대적무기와 최신군사기술로 장비된 저들의방대한 륙해공군무력을 동원하고도 15개 추종국가 군대까지 끌어들였으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습니다.》

침략력량의 총동원

미제는 밀도상으로 볼 때 전쟁력사상 전례없는 대병력을 조선전쟁에 투입하였다.

① 미제침략군무력

미제는 1950년 6월 25일에 남조선괴뢰군을 무력침공에로 내몬후 6월 26일 새벽부터 미해병대를 조선전선에 출동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트루맨의 명령으로 미해군과 공군을 전면적으로 출동시켰다. 그후 인민군대의 드세찬 반공격에 극도로 당황한 미제는 6월 30일 미륙군의 출동을 명령하였다.

결국 미제는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을 조선전선에 들이밀었다.

놈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선전쟁기간 전투에 참가한 미제침략군수는 연 400여만명이나 되였다.

② 《유엔군》 조작투입

《유엔군》이란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유엔의 간판밑에 동원하였던 미군과 추종국가들의 고용군들을 말한다.

미제는 1950년 7월 7일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비법적으로 소집하고 이른바 북의 《침략》에 대처하여 《유엔군》을 조작한다는것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후 미제침략군과 함께 15개 추종국가인 영국, 오스트랄리아, 벨지끄, 카나다,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꼴롬비아, 룩셈부르그, 네데를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뛰르끼예, 타이, 남아프리카련방의 고용병들을 조선침략전쟁에 끌어들이였다.

③ 일본군국주의 침략무력

1950년 7월 27일 영국 로이터통신은 조선전쟁에 2만 5 000명의 일본침략무력이 참가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기술기재 동원

공중요새라고 불리우던 《B-29》를 비롯한 각종 최신형비행기들을 전쟁 초기에는 1 500여대, 전쟁마지막시기에는 1만대이상 동원하였다.

대량살륙무기인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군사비와 군수물자

조선전쟁기간 미제가 탕진한 군사비는 200억US$이상, 군사물자는 태평양전쟁시기의 11배인 7 300만t이상에 달하였다.

미제의 살인장군들

미제는 전쟁 3년간에 맥아더, 릿치웨이, 클라크를 《유엔군사령관(전선사령관)》으로 세번씩이나 갈아대였으며 워커, 알몬드, 밴프리트, 테일러, 띤 등과 같이 침략전쟁경험이 많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살인호전광들을 모조리 끌어들이였다.

미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방대한 침략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조선침략전쟁에 복무하게 하였으며 마샬, 브래들리 등과 같은 최고군사우두머리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을 현지지휘하게 하였다.

미제는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대통령까지 갈아대면서 최후발악하였다.(트루맨-아이젠하워)

가장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전쟁방법의 적용

① 불의의 침공수법

미제는 우선 불의의 침공으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집어삼키려는 강도적인 침략수법을 적용하였다.

놈들은 불의의 침공으로 일시에 평양, 원산계선을 점령한 후 급속히 압록강, 두만강일대에로 진출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먹어보려고 망상하였다.

② 대규모상륙작전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때 미제는 태평양방면의 륙해공군을 총동원하였으며 지중해함대의 일부와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조선전선에서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달려드는 5만여명의 병력과 300여척의 함선, 1 000여대의 비행기들을 단 네문의 포와 한개 중대의 력량으로 결사적으로 맞서 월미도를 3일동안이나 고수함으로

써 인민군대의 전략적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③ 대규모적 집중공세

미제는 통천, 원산 앞바다에서의 상륙작전기도에 배합한 1 211고지 일대에서의 발악적대규모공세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여기에서도 돌이킬수 없는 참패만 거듭하였다.

④ 초토화전법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놈은 1952년 8월에 공화국 북반부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침략군놈들을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만행에로 내몰았다.

놈들은 평양시에만도 무려 42만 7 800여개의 폭탄과 나팜탄을 떨구었다.

부당한 유엔안보리사회의 결정과 결의안조작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저들에게 추종하는 나라들을 발동하여 전쟁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는 비법적인 결정을 조작하고 뒤이어 6월 27일에는 미군과 함께 저들에게 추종하는 유엔성원국군대의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을 허용하는 침략적결정을 조작하였다. 이 결의안은 미제가 이미 조선침략전쟁 도발 이전에 준비해 놓았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후에 《유엔군》이 조작되였다.

미제의 수치스러운 참패와 정전협정

미제는 전선에서 이루지 못한 침략야망을 담판의 방법으로 실현해보려는 망상밑에 파렴치한 군사외교책동도 벌리였다.

전선에서 패전에 패전을 거듭한 미제는《강대국》의 체면도 집어던지고 할수없이 1951년 6월에 정전담판을 우리 측에 제기해왔다. 놈들은 담판을 통해 저들의 흉악한 침략적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이른바 《영예로운》 정전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담판에서 실패하게 되자 원자탄위협과 최후 발악적대규모공세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교섭보다 행동이 제일이라고 떠벌이면서 새로운 《신공세》를 기도했으며 이와 함께 박헌영간첩도당으로 하여금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한 전복음모를 꾸미도록 하였다.

하지만 미제의 이 모든 책동들은 여지없이 분쇄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할수없이 1953년 7월 27일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4. 인민학살과 파괴략탈만행

미8군사령관 워커의 명령 (《유엔군》병사들에게 내린 명령)

《설사 그대들앞에 서있는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하는것이며 또 유엔군병사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다.》

신천대학살만행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관놈은 살아있는 모든것을 죽음의 재가루로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52일동안에 군내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300여명의 무고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1950년 10월 18일 전 신천군당방공호에서 900여명을 학살하였다.

10월 20일 전 신천군 내무서방공호에서는 520여명의 인민들을 결박하여 방공호에 가두고 입구를 꽉 막은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수류탄을 던졌으며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하여 사람들의 형체조차 알아볼수 없게 하였다.

학살만행을 현장에서 지휘하던 미군사령관놈은 희열에 넘쳐 졸개들에게 수고했다고 치하하였다. 그리고 현장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은 인민군대가 후퇴하면서 인민들을《학살》한 좋은 자료가 될것이라고 줴쳤다.

12월 1일 원암리 밤나무골의 두 화약창고에 900명의 인민들을 가두고 여러날동안 물한모금 주지 않고 굶기면서 여러차례나 100여명씩 끌어내다 집단학살하였다.

어느날 이곳에 나타난 미군사령관놈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하면서 웃창고에는 102명의 어린이들을, 아래 창고에는 400명의 어머니들을 따로 갈라 가두고 얼어죽고 굶어죽게 하였으며 12월 7일에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한편 창문으로 수류탄을 던져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의 모범농민을 체포한 미제야수들은 그의 코와 귀를 철사로 꿰고 두손에는 총창을 꽂고 이마에는 표창장을 못으로 박아 붙인 다음 끌고다니다가 그의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때 그의 며느리가 항거해나서자 그도 뒤산 밤나무에 묶어놓고 갖은 만행을 다한 끝에 불태워 죽이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학살한 수-수십만명

미제는 우리 인민을 학살하는데서 총살, 타살, 교살, 생매장, 귀를 꿰고 눈알을 뽑고 유방을 자르며 가죽을 벗기고 입술을 도려내며 혀를 자르고 못을 박고 사지를 찢으며 불태우고 땅크로 깔아죽이는 등 별의별 악착한 방법을 다 썼다.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렇게 학살한 수는 수십만명이며 그중 황해도에서만 10여만명, 초산군에서는 하루에 900여명을 학살하였다.

공화국남반부에서 학살한 수-100여만명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에서 1 000여명, 춘천에서 3만여명, 대전에서 8 000여명, 안성에서 5 000여명, 전주에서 4 000여명 등 모두 100여만명을 학살하였다.

원자탄, 세균무기, 의학실험대상으로 학살

1951년 5월 태평양의 한 섬에서 우리 측 포로들을 원자탄실험용으로 삼아 무참히 학살하였다.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는 세균무기시험용으로 또는 기관총사격대상으로 삼아 학살하였다.

부산, 거제도야전병원에서는 수술실험용으로 우리 측 포로 수천명을 학살하였다.

폭탄, 포탄 떨군 수

평양시에는 인구수와 맞먹는 수의 폭탄, 나팜탄을 떨구고 북반부지역 1km^{2}에 평균 18개의 폭탄과 포탄을 퍼부었다.

건물,농경지, 문화유적 파괴략탈

북반부에서 8 700여개의 공장, 기업소, 60여만호의 주택, 5 000여개의 학교, 수천개의 병원, 수만정보의 농경지, 문화유적유물 6 700여점을 파괴략탈하였다.

남반부에서는 전쟁 첫 4개월동안에 50여개의 도시와 1만 2 400여개의 농촌마을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5.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죄행

일본내각회의 방침

일본반동정부는 《유엔군》을 조직할데 대한 유엔안보리사회결정이 조작되기 전인 1950년 7월 4일에 벌써 내각회의를 열고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후 총리 요시다는 7월 7일 유엔안보리사회결정이 조작되자 《일본은 조선전쟁에 군대와 무기를 수송하여 줌으로써 유엔과 협력할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전국을 미군의 조선침략전쟁기지로 제공

1950년 6월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은 일본경제를 부활시킬수 있게 한 절호의 기회였다. 그것은 미제가 조선전쟁에 필요한 수많은 군수품들을 일본에 주문하였던것이다.

일본은 정부기구로서 특수조달청이라는것을 내오고 독점재벌들의 총련합체인 일본경제인련합체안에 방위생산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 기구들을 통하여 미제가 요구하는 군수품생산을 적극 보장하였다.

1952년 6월에 이르러 군수품생산에 근 400개의 대규모공장들이 참가하였으며 그후 그 수는 860여개로 늘어났다.

일본의 86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포와 로케트탄, 기관총, 보총, 각종 탄알을 생산하고 비행기, 군함, 땅크들을 수리하거나 조립하여 미군에 넘겨주었다.

조선땅을 폭격한 《B-26》, 《B-29》를 비롯한 폭격기, 전투기, 수송기 등 수많은 미제침략군비행기들은 일본의 오끼나와, 아오모리, 요꼬다, 이다즈께 등지에 있던 항공기지들에서 하루 평균 400여대씩 날아온것들이였다.

미제7함대도 일본의 여러 해군기지들에서 출발하여 조선동서해를 봉쇄하려고 하였으며 연안의 도시와 마을들을 야만적으로 포격하였다.

미군과 동맹국의 군대들은 일본에 있다가 전쟁이 개시되자 총동원하였으며 남조선괴뢰군의 적지 않은 장교들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에서 훈련을 받고 전쟁마당에 나왔다.

일본은 1952년 7월 미국과 군사시설 및 군사구역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1 280여개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을 미군에 넘겨주었다.

일본이 지난 조선전쟁기간 미제로부터 받은 군사주문품 총 액수는 25억US$이상에 달하였다고 한다.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의 기초는 이렇게 축성된것이다.

조선전쟁에 참가한 일본침략군 수

1950년 7월 27일 영국로이터통신은 조선전쟁에 참가한 일본침략군의 수가 이 시기에 벌써 2만 5 000명이라고 하였다. 전쟁개시 한달만에 이쯤되였으니 3년간의 조선전쟁 전기간에는 얼마나 많은 일본침략군이 참가하였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미군시체속에서 발견된 일본군의 시체

미24보병사단 스미스특공대가 수원, 오산일대에서 인민군대에 의하여 소멸되였을 때 그 시체속에서 30여구의 일본군장교들의 시체가 발견되였다.

인천상륙작전참가

일본해군장교들은 미군과 같이 인천상륙작전계획을 세웠으며 상륙작전 때에는 수많은 침략무력을 수송해주었다.

이때 일본함정 50여척과 수천명의 해안보안청군인들을 동원하였다.

또한 30여척의 소해정을 파견하여 인천앞바다의 기뢰를 해제하고 미7함대함선들의 수로를 안내하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인천앞바다의 해상 및 지형조사자료를 미군에 넘겨주었다.

미제침략군의 전선수송보장

일본은 미군의 전선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667척의 선박(30만t)과 철도, 자동차도 모조리 동원하였다.

1950년에 철도로는 미군 904만여명을 수송하였다. 이해 12월 장진에서 녹아난 미10군단의 1해병사단, 3보병사단, 남조선괴뢰군 패잔병들이 흥남항으로 도망칠 때 수많은 일본함선들을 동원하여 도와주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

에 참가하여 아무리 발광을 했어도 승리는 우리가 하였고 수치스러운 참패는 미제와 일본이 당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여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전후에도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계속 하였다.

제3장. 전후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

제1절. 전후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변함없는 야망을 추구하면서 〈평화〉의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습니다.》

1. 전후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가로막기 위한 미제의 책동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의 조작

미제는 1953년 8월 8일 남조선괴뢰들과《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하였다.

이 조약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영원히 강점하며 임의의 시각에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또다시 전쟁을 도발할수 있다는것을 규정한 침략조약이다.

정치회의의 파탄

미제는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앞으로 하기로 예견한 정치회의의 소집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다.

정치회의의 기본목적은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자는데 있었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53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정치회의와 관련한 쌍방예비회담이 열렸다. 놈들은 이 회담을 지연전술과 일방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법으로 파탄시켰으며 우리측의 거듭되는 제의를 무턱대고 거절함으로써 정치회의소집을 완전히 파탄시켰다.

국제회의들에서 조선문제토의를 파탄시키기 위한 책동

1954년 2월 베를린에서 4개국(쏘, 미, 영, 프) 외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 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4월에 제네바에서 우리 공화국대표의 참가밑에 조선문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을 내세워 제네바회의를 반대하는 《성명》을 10여차례에 걸쳐 내게 하였으며 회의가 시작된 다음에는 그 어떤 협상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미국대표 덜레스놈은 저들의 요구가 통하지 않게 되자 제놈들이 《조선에 와서 몇십만명의 희생을 냈는데 이제 조선을 거저 내놓겠는가. 우리는 조선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광기를 부리기까지 하였다.

미제는 그후 우리측의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들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해마다 유엔총회에서 유엔감시하의 선거안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북진통일정책을 감싸기 위한 너울이였다.

2. 전후 미제의 군사적도발책동

16개국선언

미제는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바로 그날에 워싱톤에서 이른바 16개국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조선정전협정을 휴지화하고 다시

전쟁을 도발할 야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제는 이 선언에서 저들이 조선에서 다시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추종국가들의 군대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또다시 조선전선에 끌어들이며 그때에는 《적대적행동을 절대로 조선국경내에 국한시킬수 없을것》이라고 뇌까렸다.

《푸에블로》호사건

미제는《푸에블로》호사건을 도발하고 이를 계기로 무분별한 새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15일 이후 우리측 령해를 17개소나 침범하면서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1월 23일 우리 측 령해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의하여 나포되였다.

놈들은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자 그 무슨 《보복》을 떠들면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편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부터의 도발행위를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는 1968년 1월부터 3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지상에서만도 무려 2 000여차례의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소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발광하는 미제침략자들에게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폭탄선언을 내리시였다.

미제는 마침내 1968년 12월 23일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사죄하며 다시는 그런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것을 사죄문에 서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로부터 조선전쟁에서의 승리에 뒤이어 두번째 항복서를 받아내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미제는 1969년 4월 15일 대형간첩비행기《EC-121》을 우리 공화국령공에 침입시켜 적대적정탐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였으며 간첩

비행기가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격추되자 흑백을 전도하면서 새로운 전쟁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던 미제의 발악적인 책동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3.1970~1990년대 초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

대리전쟁전략

미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 아시아군사전략으로 대리전쟁전략을 작성하였다.

대리전쟁전략은《아시아사람에 의한 아시아》라는 구호밑에 저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앞에 내세워 싸우게 하고 미군은 해공군위주의 지원을 하여 아시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침략과 전쟁전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매우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미제는 새 군사전략에 따라 새로운 조선전쟁을 불의에 먼저 일으키고 짧은 기간에 끝마칠 선제공격전술과 속전속결전술을 들고나왔다.

미제는 이 전술들을 더 구체화하여 작전계획들을 작성하고 전쟁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판문점사건(8.18사건)

미제는 1976년 8월 18일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판문점사건을 도발하였다.

1976년 8월초 미국대통령 포드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에게 조선에서 세상을 놀래울만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라는 극비전보문

을 보내였다.

8월 18일 미제침략군은 남조선괴뢰군과 10여명의 《로무자》들을 군용차에 싣고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에 달려들어 무작정 거기에 서있는 백양나무를 찍기 시작하였다.

우리측 경무관이 나무를 찍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미군중위놈이 우리 경무원에게 도끼를 던지고 적들이 일시에 우리 경무원에게 달려듦으로써 적아간에 격투가 벌어졌다.

미군장교 두놈이 즉사하고 여러놈이 부상당하자 놈들은 도망쳤다.

미제는 사건의 진상을 외곡하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며 무력과 장비를 조선반도에 집결시키면서 정세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제의 침략적본성만을 여지없이 드러냈을뿐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수 없었다.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미제는 1976년부터 남조선괴뢰들과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대규모적으로 벌리면서 이 땅에서 어느때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는 정세를 조성하였다.

17년간(1976년~1991년, 1993년) 벌어진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기 위한 공격전쟁연습이였으며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핵전쟁연습, 핵시험전쟁이였다.

매해 년례행사처럼 벌려온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되여 1985년부터는 20여만명의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이 조성되였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을 받고 미제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1994년부터 중지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그에 맞먹는 《을지포커스 렌즈》, 《독수리》의 간판을 단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쟁소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8일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핵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다발보복전략

1980년대 초 호전적인 미국의 레간정권은 이른바 《강력한 미국의 재현》이라는 구호밑에 침략적인 강경로선을 선포하였다.

미제는 그 실현을 위해 다발보복전략과 그것을 구체화한 3대 전쟁전략을 들고나왔다.

다발보복전략이란 그 어떤 대방이 미국의 리해관계가 있는 지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그 지역에서의 대응뿐아니라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대방의 군사적약점에 대하여 보복함으로써 전쟁을 세계적 범위에서 다발화한다는것이며 3대전쟁전략이란 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중근동의 혁명적인 나라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규모의 전면전쟁을 동시에 수행한다는것이였다.

미제는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공격형의 전쟁방식으로서 1982년 9월 공지전전략을 들고나왔다.

미제는 공지전전략을 새 조선전쟁에 적용할 목적밑에《팀 스피리트83》합동군사연습때부터 도입하였다.

※ **공지전전략**

공중화력과 공중기동부대에 의한 종심공격과 지상군의 전방공격 그리고 함대화력의 지원밑에 상륙부대와 특수부대가 가상적인 적의 전후방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타격할것을 노린 공중, 지상, 해상 립체련합작전을 말한다.

4. 미제의 새로운 세계제패전략과 전쟁계획

새 지역방위전략

미제는《랭전》종식후《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해 크게 떠들면서 새로운 세계제패전략으로 1992년 5월 새 지역방위전략을 들고나왔다.

새 지역방위전략이란 이른바 새로운《도전세력》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미군주도하에 동맹국들과 추종국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세계도처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과 주요지역들(군사적요충지

들과 주요자원지대들)을 지배하고 통제할데 대한 세계제패전략이다.

미제는 이를 구체화하여 1993년에 새 군사전략을 들고나왔다.

새 군사전략의 기본내용은 2개의 대규모전쟁을 동시에 치르어 《동시승리》한다는것이였다.

놈들은 이 전략에서 이른바 《지역적도전세력》으로 우리 나라를 직접 찍었다.

이것은 미제의 새 군사전략이 세계《유일초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확보하고 제놈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특히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여 기어이 먹어보려고 하는 강도적인 침략전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5027작전계획》

《5027작전계획》은 미제가 짜놓은 제2의 조선침략전쟁이였다.

미제는 당시 있지도 않는 우리의 《지하핵시설》문제와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구실로 《5027작전계획》의 내용을 공개하여 우리를 위협해보려고 하였다.

이 작전계획은 모두 5단계로 구분되여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여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다가 불의에 선제타격을 가하여 《전쟁성과》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를 먹어치우겠다는것이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다.

미제는 이 작전계획수행을 위해 10여만의 미군과 남조선괴뢰군무력과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투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립장과 견결한 투쟁기세앞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제2절.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

1. 남조선-일본《회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도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이후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괴뢰

들과 결탁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을 더욱 강화하려고 책동하였다.

그것은 범죄적인 남조선-일본《회담》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조선전쟁시기 《예비회담》으로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중엽까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사이에 7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매국역적들의 공모결탁에 의하여 회담은 1965년 6월 22일 1개의 《조약》, 4개의 《협정》을 조작하는것으로 결속되였다.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사이에 조작된 조약과 협정들은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조약》과 《협정》들이다.

①《기본관계조약》에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을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라고 하면서 조선의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며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에 적극 복무하도록 내용을 규정하였다.

결국 이 조약은 1905년의《을사5조약》과 같은 침략적매국《조약》이다.

②《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제의 과거피해 배상문제는 겨우 3억US$로 그것도 배상으로가 아니라《독립축하금》으로 준다고 남조선괴뢰들을 얼려넘기였다. 또한 경제협력이라는 간판밑에 차관(꾸어주는 돈) 몇푼을 준다고 하면서《원조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들려고 하였다.

③《어업협정》에서는 남조선의 넓은 어장을《공동》이라는 이름밑에 일본에 팔아먹었다.

④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서는 재일동포들이 우리 공화국의 국적을 못가지게 하며 남조선《국적》을 가지도록 강요하게 하였다.

⑤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과거 일제가 략탈한 수많은 문화유산들중에서 대비도 안되는 일부의 량을 돌려준다고 하였다.

이 《조약》, 《협정》들은 우선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길을 열어준 문건들이였으며 또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골간으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여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침략문건들이였다.

2.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설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침략기구들을 설치하였다.

놈들은 범죄적인 《협정》이 조작되자마자 남조선주재 일본사무소를 설치하고 1965년 12월 18일에는 서울에 일본대사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의 기구와 정원을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고 하던 타이주재 일본대사관의 2배나 되게 꾸리였다.

그후 부산에 총령사관을, 인천에 령사관을 설치하였다.

이처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시아침략계획실현에서 남조선에 큰 힘을 돌리고 재침을 강화하였다.

3.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강화

일본군국주의자들은《협정》조작이후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놈들은 정치적으로 괴뢰들의 몸값을 올려주고 남조선괴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놈들은 1960년대 이후 남조선괴뢰들과의 정치적관계를 군사동맹관계로 발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일본반동들은 경제적으로는 남조선경제를 예속시켜 저들의 부속물로 만들었다.

또한 《친선뉴대강화》의 미명하에 사상문화적침투도 강화하였다.

놈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일감정을 무마시키고 친일사상 특히 군국주의사상을 부식시켜 왜색왜풍이 판을 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의 2중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제4장.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

제1절.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

1.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여 전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그러쥐고있으려는 음흉한 목적에서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미제는 1960년대 말부터 새로운 대조선정책으로서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왔다.

미제가《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오게 된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당장에는 무력침공의 방법으로 전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북남간의 《공존》을 유지하고 분렬상태를 고착시켜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틀어쥐고있으려는 야망으로부터 이 정책을 들고나왔던것이다.

《두개 조선》정책의 침략적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미제가《세계제패》를 실현하며 남조선괴뢰들이 《승공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힘을 키울 때까지 조선의 분렬상태를 고착시키고 현상유지하자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침략에 필요한 모든 준비와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한 기간 현상유지를 하다가 일단 조건이 성숙되고 정세가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변되면 전쟁으로 전조선을 강점해보자는것이였다.

2.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

대화전술

미제는 《두개 조선》조작을 실현하기 위해 대화전술에 매달렸다.

미제는 1969년 초부터 북남대화와 협상의 구호를 들고나와 우리 나라의 평화통일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가장하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하였다.

미제는 북남대화를 분렬대화로 전변시키기 위해 괴뢰들을 부추겨《당국》이 대화를 독점하고 알맹이 없는 공리공담만을 되풀이 하면서 시간을 무한정 끌도록 하였다.

미제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괴뢰들은 7.4북남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란폭하게 위반하였으며 1973년 6월에는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공식적인《정책》으로 선포함으로써 북남대화를 완전히 파탄시켰다.

국제적《공인화》책동

미제는 1970년대 초부터《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합법화》,《공인화》시켜 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1973년과 1975년 유엔총회(제28차, 제30차회의)들에서 북남조선을 유엔에 가입시켜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유엔동시가입안(1973년)이나 유엔단독가입안(1975년)은 의제로도 상정되지 못한채 기각되고말았다.

그후 미제는 교차승인과 4자회담을 성사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 4자회담이란

북과 남, 중국, 미국이 모여 정전협정의 《유효성》을 담보하며 《항구한 평화》보장방도를 토의한다는것이였다.

1단계는 북남이, 2단계는 중국, 미국까지 참가하며 3단계는 이전 쏘련, 일본도 참가한다는 3단계4자회담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문제는 주권국가도 아니고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닌 남조선괴뢰들을

회담에 끌어들여 그들에게 국제적으로 주권국가의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두개 조선》을 만들자는데 있었다.

※ 교차승인이란

이전 쏘련과 중국은 남조선괴뢰《정권》을 인정하며 미국,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인정함으로써 남조선에도 하나의 주권국가가 있는것처럼 보여 결국 조선을 두개의 국가로 만들자는 분렬책동의 하나였다.

1980년대 말 미제는 북남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될수 없는 조건에서 남조선의《단독가입》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

만약 남조선괴뢰들이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나라와 관련된 문제들이 공정하게 처리될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이 유엔에 주동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환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우리 공화국이 유엔에 주동적으로 가입(1991년 9월)함으로써 유엔무대를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는데 악용하려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음모는 파탄되였다.

3.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핵사찰》소동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반동들은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이른바 《핵사찰》소동을 계획적으로 감행하였다.

적들은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순분자들을 내세워 우리의 중요군사기지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 나섰다.

적들의 소동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결코 용납될수 없는 침략행위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적들의 군사적압력에 대처하여 1993년 3월 9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으로 온 나라

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여 전군, 전국, 전민을 조국보위에 불러일으키시였다.

이어 공화국정부는 3월 12일에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다음해 6월 13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폭탄선언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는 할수 없이 조미회담장에 끌려나와 1994년 10월에 조미기본합의문에 조인함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말았다.

※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성원국들사이의 기술적협조를 실현할 목적밑에 1957년에 조직된 유엔산하기구이다.

우리 나라는 1974년 9월에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

※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핵무기의 세계적전파를 방지하고 핵위협을 제거할 목적밑에 1970년에 만들어낸 국제적인 조약이다.

우리 나라는 1985년에 가입하였다.

※ 조미회담

1993년 6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10월 20일에 담보서한을 올리였고 10월 21일에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

유화전략

미제의 유화전략이란 우리를 회유기만하여 《개혁》과 《개방》에로 유도하기 위한 반사회주의적와해공세를 말한다.

미제는 1990년대에 유화전략에 따라 조미회담을 벌려놓고 우리와의 관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듯이 가장해 나섰으며 경수로건설과 식량《지원》을 통하여 우리의 강경정책을 늦추어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었다.

제2절.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책동

1. 박정희군사독재《정권》과 《유신체제》의 조작

군사파쑈독재의 조작

미제는 1960년 4월인민봉기로 리승만괴뢰《정권》이 꺼꾸러지자 정치적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박정희역도를 내세워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하고 군사적폭력에 의거한 파쑈적폭압통치체제를 수립하였다.

놈들은 1963년 12월《민정이양》놀음을 벌리고 박정희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제3공화국》) 박정희괴뢰도당은《반공법》(1961년 7월), 《국가보안법》(1962년 12월개악)과 중앙정보부(1961년 6월 조작)를 비롯한 파쑈악법과 폭압기구들에 의거하여 살벌한 폭압선풍을 일으켰다.

※ 통일혁명당사건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이 강화되자 박정희괴뢰도당은 1968년 7월 통일혁명당사건을 날조하였다. 그리고 통일혁명당의 일부 성원들을 체포투옥하고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김종태위원장, 전라남도위원회 위원장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가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유신》독재체제의 조작

미제는 1970년대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자 《평화통일》을 뒤받침한다는 간판밑에 《유신》독재체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역도는 1972년 10월 《비상사태》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개정》을 공포하는 《특별선언문》을 내놓았다.

역도놈은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속에서《유신헌법》을 꾸며내고

12월 23일에는 사실상 제놈을 종신《대통령》으로 하는 《유신정치체제》를 수립하였으며 25일에는 《제4공화국》을 조작하였다.

《10월유신체제》는 박정희역도의 1인파쑈독재체제이며 대결과 분렬의 체제, 전쟁체제였다.

2. 군사파쑈독재유지책동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였다.

1979년 10월 민주항쟁으로 《유신》독재는 더는 헤여날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를 사살하게 하고 《유신》잔당인 전두환역도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한 흉계를 꾸미였다.

미제의 지지하에 전두환역도는 로태우역도와 함께 12.12숙군쿠테타를 일으켜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저녁 전두환일당은 무력을 동원하여 륙군참모총장공관을 습격하고 정승화를 랍치하였으며 륙군본부, 국방부, 특전단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를 점령하고 국방장관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제놈의 심복졸개들을 주요자리에 앉히였다. 그리하여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후 전두환역도놈은 《5.17파쑈폭거》를 단행하고 광주인민들에 대한 대량살륙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실권을 틀어쥐였다.

※ 1980년 5월 17일 밤 전두환은《비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미 부산지역에서 실시하고있는 비상계엄령을 남조선전역에서 실시하도록 선포하고 포고령을 내려 정당,《국회》를 비롯한 일체 정당활동의 금지, 출판보도물의 사전검열제실시, 대학의 휴교 및 태업과 파업금지,《유신체제》비판금지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2만여명의 병력과 장갑차를 끌어들여 괴뢰행정기관, 언론기관, 대학을 봉쇄하고 주요도시들에 30만명의 계엄군을 풀어놓고 저들의 정치적반대파들을 대대적으로 잡아가두었다.

미제는 1981년 8월 전두환역도를 괴뢰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이른바《제5공화국》을 조작하였다.

1980년대 말 전두환괴뢰《정권》이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겪게 되자 미제는 어떻게 하나 《민정당》위주의 군사파쑈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로태우역도를 내세웠다.

미제는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분렬와해책동을 감행하고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진행함으로써 로태우군사파쑈《정권》을 조작하였다.(《제6공화국》)

미제는 이처럼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군사파쑈분자들로 그 우두머리들을 제멋대로 갈아대면서 파쑈적폭압을 강화하였다.

3. 미제의 광주인민항쟁교살책동

미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1980년 5월 광주인민항쟁을 교살한 배후조종자이며 원흉이다.

1980년 5월 광주인민항쟁에 대한 류혈적인 교살만행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군사파쑈분자들의 탄압책동에서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 된다.

미제는 광주인민항쟁을 교살하기 위해 방대한 무력과 최신군사장비들을 괴뢰들에게 쥐여주면서 뒤에서 조종하였다.

미제는 전두환역도에게 괴뢰군 20사단, 9사단, 31사단 등 7만여명과 장갑차 150여대, 곡사포 100여문, 로케트발사대 16개, 대형직승기 등 대량살륙무기와 장비들, 국제법상 전쟁에서 사용금지된 신경가스탄까지 넘겨주었다.

미제의 비호조종밑에 전두환군사파쑈악당은 전대미문의 대학살을 야수적으로 감행하였다.

전두환악당은 괴뢰군 공정대놈들을 대학살에로 내몰면서《광주시민의 70%를 죽여도 좋다. 잔인성은 군인의 첫째가는 기질이다. 광주시는 공정대원들의것이다. 녀성도 재산도 무엇이나 골라잡으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놈들은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광주시민들을 학살하였다.

놈들은 1 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앉은 곳에 중포를 쏘아 죽이고 부상시킨 다음 그 우로 땅크를 내몰아 수백명을 죽이였다.

괴뢰도청앞광장과 광주역광장, 여러 네거리들에서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한 순간에 수백명씩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괴뢰악당들에 의하여 광주에서 학살된 학생들과 시민들의 수는 무려 5 700여명이였다. 그중 총탄에 맞아죽은 사람은 2 600명, 장갑차에 깔려죽은 사람은 150명, 생매장당한 사람은 1 700명, 화장당한 사람은 920명, 대검, 총탁에 의해 살해된 사람은 330명이였다. 중경상을 당한 사람은 1만 4천여명이였다.

그리하여 광주시는 《피의 목욕탕》으로 화하였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악당이 감행한 광주인민항쟁교살책동과 야수적학살만행에 대하여 절대로 잊을수 없으며 천백배로 복수하고야 말것이다.

4. 《문민》, 《국민》독재 《정권》의 조작

미제는 군사파쑈독재로서는 더는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오래동안 묻어두었던 정치특무 김영삼역도를 내세우려고 하였다.

미제의 각본에 따라 1990년 2월 로태우,김영삼, 김종필역도들이 야합하여 《민자당》을 조작하였다.

이는 정치매춘부로서의 김영삼역도의 본색을 더욱 드러내 놓았다.

이어《대통령선거》에서 2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선거자금을 뿌려 1993년 1월 김영삼역도의 《문민정권》을 조작하였다.

《문민정권》의 파쑈적반통일적본색이 드러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문민》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앙양되자 미제는《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연극을 벌려놓았다.

미제는 여당에서 분렬을 일으키고 김대중과 김종필이 합동하게 함으로써 1998년 2월 《국민》의 이름을 단 《국민의 정부》를 출현시키였다.

그러나 《국민정권》역시 다 같이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제3절. 일본군국주의의 반공화국압살책동

1. 조일국교정상화회담 지연, 파탄책동

1990년 9월 평양에서 채택된 《조일관계에 관한 조선로동당,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의 공동선언》에 따라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1991년부터 진행되였다.

3당공동선언에서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조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킬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끼친 불행과 재난, 손실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3당공동선언의 발표는 일본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과 통일정책을 받아물고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은것으로 된다.

일본반동정부의 우익보수세력들은 3당공동선언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회담을 파탄시키려고 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편승하여《핵문제》, 《미싸일발사》, 《지하핵시설의혹》 등 회담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들고나와 1996년대에 11차에 걸쳐 진행된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이 전부 파탄됨으로서 조일국교정상화문제는 해결되지 못한채 21세기로 이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2002년 9월에 발표된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일두나라대표단들의 접촉에서도 그 무슨 일본인 《랍치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옴으로써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 의하여 마련된 조일정부간회담을 또다시 결렬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다.

그 목적은 놈들이 과거 죄행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으며 회담의 막뒤에서 북침전쟁준비를 강화하여 핵무장화와 군국화를 다그치고 우리 나라가 통일된 강성대국으로 되는것을 막으려는데 있다.

2. 반총련소동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의 일환으로 반총련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은《핵문제》특히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하여 반총련깜빠니야를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일본반동들은 언론매체들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감과 조선사람에 대한 민족배타주의적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장시키면서 총련일군들을 체포구속하며 동포상공인들의 기업활동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일본반동당국은 2001년 11월 29일 재일동포상공인들의 기업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총련중앙과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300여명의 검찰 및 경찰요원들을 동원하여 총련중앙본부와 도꾜도본부, 니시도꾜본부를 강제로 수색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백건의 폭행, 폭언, 협박사건들과 총련중앙회관, 총련의 지부들과 관련기관들에《협박장》을 우편으로 보내는것과 같은 만행들을 수없이 감행하였다.

또한 깡패들을 사촉하여 재일조선인녀학생들의 치마, 저고리를 찢으며 욕설하고 때리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2006년에 총련조직을 파괴하고 재일동포사회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전면적인 실천단계에서 발광적으로 벌렸다.

일본반동들은 우리공화국이 미싸일발사시험과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후인 2006년 11월 무장기동대를 동원하여 총련도꾜도본부를 비롯한 7개소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소동을 벌렸다. 일본반동들은 총련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재일조선인학교 학생들을 《외국인학교》에서 제외시키고 대학입학시험자격을 주지않는 등 민족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

특히 일본당국은 국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부터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유독 총련조선학교만을 제외시키는 민족차별정책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은 2008년 7월 우리의 자위적인 미싸일발사를 계기로 《북조선위협론》을 떠들면서 몇년전부터 《제재》를 가하던 끝에 《만경봉-92》호의 일본입항을 금지시키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반동정부와 우익반동들에 의하여 감행된 모든 반총련책동들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존엄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에 대한 잔인한 유린이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적대행위였다.

3. 력사외곡책동

일본반동들은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 저들의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있다.

그것은 2002년 새학기부터 사용하게 될 중학교용 력사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우익단체들을 내세워 새 력사교과서를 편찬하고 검정통과시켜 그것을 일본의 새 세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새 력사교과서에서는 40여곳에서 조선침략의 죄악사를 외곡미화하고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4세기부터 수백년동안 일본이 조선의 남부지역에 《일본부》라는것을 설치하고 그곳을 지배하였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였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정복론인 《정한론》이 《국교》를 맺자는 일본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여 리조정부의 《무례》한 태도로 하여 발생한듯이 그 침략성을 완전히 외곡하였다.

《운양》호의 도발사건에 대해서는 저들의 침략행위를《측량 등 시위행동》으로, 군사적도발과 학살만행을《교전》이라고 꾸며놓았다.

또한 갑신정변의 원인과 성격을 완전히 외곡하면서 애국자인 김옥균을 《친일파》로 규정해놓았다.

갑오농민전쟁의 반침략반일적성격을 외곡하면서 그 의의를 없애려 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에 대해서는《일본정부는 한국의 병합이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만주 할빈에서 암살》했기때문에《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씀으로써 천추에 용서못할 날강도적침략죄행을 감추려고 하였다.

식민지통치시기 감행한 인민학살과 자원략탈,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간 특대형범죄, 840만여명의 조선사람강제련행범죄를 력사책들에서 삭제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에 일본이 미제의 하수인으로서 적극 참가한 사실도《미군에 많은 물자를 공급하였다.》고 쓰면서 그 죄악을 덮어

버리였다.

가장 악독한 일제의 침략력사를 감추고 외곡하는것은 오늘 일본반동들이 지난 날의 침략범죄를 감행한 놈들과 꼭 같은자들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 사대매국적인 《실용정권》이 출현하자 더욱 오만방자해져 독도강탈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본문부과학성은 2010년 4월 교과서검정조사심의위원회라는것을 열고 2011년부터 사용하게 될 5종류의 초등학교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령토》라는 표현과 독도를 일본령해를 표시한 선안쪽에 포함시킨 지도가 들어가있는것을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과 독도강탈책동의 목적은 새세대들을 군국주의로 무장시켜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실현에 내몰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책동을 짓부시고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